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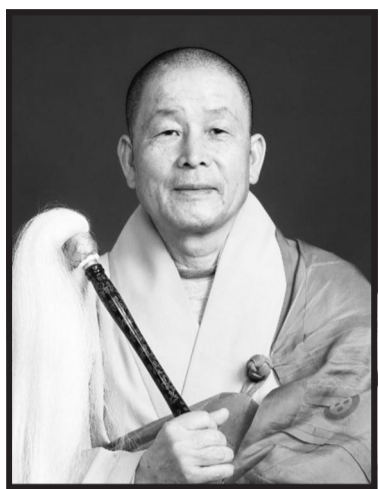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스님 입적

법랍 50년, 세수 75세로 원적 5일 송광사에서 영결식·다비식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스님(사진)이 지난 1일 오후 8시 입적했다.

2일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현봉스님은 뇌출혈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입적했다.

이날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남은당 현봉대중사 총림장 장의위원회는 오전 부고를 통해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남은당 현봉대중사께서 세연이다 하시어 불기 2568(2024)년 5월1일(음 3월23일) 오후 8시 순천시 조계총림 송광사 삼일암에서 법랍 50년 세납 75세로 원적하셨다”고 알렸다.



1949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현봉스님은 어릴 적 한학자인 할아버지로부터 한학을 공부했으며, 1975년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송광사 주지, 조계

종 호계원 재심호계위원 등을 지냈고 2019년 제7대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으로 추대됐다. 2021년에는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중사에 올랐다.

현봉스님은 송광사 주지를 마친 뒤 수년간 광원암에서 농사를 지으며 수행하기도 했으며 형식보다는 마음가짐과 실질을 중시했다. ‘밭두렁 정진’과 청빈한 삶을 실천했고, 불교 사상을 알기 쉽게 대중에게 전했다. 반야심경 해설서인 ‘대전화상 주심경(大顛和尚注心經)’을 한글로 풀이한 ‘선(禪)에서 본 반야심경’은 30년이 넘도록 스테디셀러에 올라 있으며, 천수경 해설서인 ‘너는 또 다른 나’도 펴낸 바 있다.

영결식과 다비식은 오는 5일 오후 2시 송광사에서 엄수된다.

정삼아 기자



조영임 광산구의원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대상

광주 광산구의회는 조영임 의원이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조영임 의원은 최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공동체육량 증대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 발굴과 지방정치 인식 제고를 목표로 매년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 및 시상하는 전국 단위 공모대회

다. 재선인 조 의원은 제9대 광산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양성평등문화 확산, 주민자치 활성화, 공동체 자치역량 강화, 상생 먹거리 정책 발굴 등의 현안과 관련해 지역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이 정치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상철 기자



호남대 CHAMP, 오한수 원우회장 취임식

호남대학교 사회융합대학원(원장 김덕모)의 ‘중국 최고경영자과정(CHAMP)’은 지난 1일 제9기 중국 최고경영자과정 ‘오한수 원우회장 취임식 및 원우 환영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중국 최고경영자과정 문병재 총동창회장, 8기 이재현 회장, 9기 오한수 회장 등 원우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 김덕모 원장은 “중국 최고경영자과정을 통해 중국을 보다 잘 이해하고 양국의 상호교류 증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2부 행사에서는 9기를 이끌어갈 임원진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원우 소개,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중국 최고경영자과정은 한국과 중국의 석학과 전문가들의 오프라인 강좌와 중국연수 등으로 구성되고, 오는 12월11일까지 진행된다.

김혜인 기자



신안군 압해농협, 근로자의 날 행사 성황

신안군 압해농협은 지난달 30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신안비치호텔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보험사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에 참여한 압해농협 직원 및 직원가족 100여명은 보험사업 강연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서로 하나 되어 2024년도 적극적으로 보험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며 압해농협 및 조합원을 위해 열심히 뛰자며 의기 투합하는 한편 소통과 화합을 다짐했다.

이벤트 행사도 다양한 경품추천행사를 진행하였는데 경품으로 농촌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농촌 소비활성화 및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전성태 압해농협 조합장은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근로자의 날이 있어 대부분 야외 행사로 자리를 마련하는데, 우리 압해농협은 ‘가족과 함께하는 보험사업 세미나’를 개최해 직원 및 직원의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



(주)전통, 광주소년원에 장학금 전달

정보통신전문기업 (주)전통(회장 김만웅)은 지난 1일 법무부 산하 청소년보호기관 광주소년원(원장 신원식)에서 모범보호소년 10명을 선발,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주)전통은 국내 통신 3사의 협력사로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사

회적 책임을 다하며 ESG경영에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보통신시공 분야 호남 최장수 기업이다.

한편 장학금 전달식은 올해 8회째를 맞았으며 누적총액만 4000만원에 달한다.

박소영 기자



광주디자인진흥원, ‘가정의달’ 체험 행사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임동디지털창작소에서 ‘가정의달’을 맞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디지털 창·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

광주시가 지원하고 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임동디지털창작소는 시민들이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문화상품, 생활상품 등의 창·제작, 어린이들이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다.

이날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오는 10일 임동창작소와 인접한 챔피언스필드 야구장과 연계해 시민들이 야구 굿즈 제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21일부터 3일간 ‘창작의 즐거움’을 테마로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생활용품 제작 △DIY KIT만들기 △3D 푸드프린터 등을 활용한 과자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는 14일에는 가족 단위 시민들을 위해 디지털 장비활용 특강을 마련한다. 이번 특강은 준비한 가족 사진을 다양한 디자인으로 편집,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출력해 볼 수 있다. 박소영 기자



광주환경공단 ‘VISION 2028 선포식’

광주환경공단은 2일 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공동 비전 2028 선포식 및 기념 식수 행사를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사진)

광주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경영목표 달성과 혁신경영을 위한 실천 의지 및 공단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담은 새로운 비전을 선정하고 선포했다. 비전 선포식은 시민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도록 최고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지닌 환경전문 공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전 임직원이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단은 ‘깨끗한 환경으로 시민행복 증진’이라는 미션과 함께, ‘시민행복이 빛나는 지속가능한 그린 공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고유사업 스마트화를 통한 혁신경영, △미래 환경솔루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함께하는 공간에서 환경행복 실현을 전략 목표로 정하고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노병하 기자

뷔뷔코리아-YG엔터테인먼트 파트너십 체결

한국의 디지털 수집품 플랫폼 뷔뷔코리아(VeVe)가 ‘YG 엔터테인먼트’와의 파트너십을 2일 공식 발표했다. (사진)

이 협업은 케이팝 팬덤을 대상으로 새로운 디지털 수집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VeVe는 디즈니, 마블, 스타워즈, 코카콜라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들과의 협업으로 이미 주목받고 있는데, 이번 협력을 통해 5월에는 케이팝 아이돌을 주제로 한 새로운 디지털 수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뷔뷔코리아의 대표는 “이번 협업은 단순한 산업 간의 결합을 넘어서 디지털 시대의 팬 참여를 새롭게 해석하는 시도”라며,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제품 출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증강 현실 환경에서 다양한 캐릭터와 아이콘의 디지털 수집



품을 체험하고 전시할 수 있는 VeVeVibes라는 음악 카테고리에서 케이팝 아이돌의 디지털 수집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구체적인 아티스트는 이달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이뮤타블 엑스를 활용하여 탄소 중립 디지털 수집품 생태계를 구축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VeVe 창립자 데이비드 유는 “이번 파트너십은 디지털 수집품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게임체인저’를 창출하는 시도”라며, 곧 공개될 아티스트를 통해 디지털 팬덤의 진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